나를 부르는 곳 설악산 四色비경_주전골(가을)

1. 목적 및 배경

○ 계절마다 수려한 풍광과 정취를 보여주는 설악산의 자연생태를 탐방하고, 힐링체험 및 탐방원 야외 정원에서 밤하늘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생태관광(○), 환경교육( ), 상시( ), 특화( )

○ 프로그램명 : 나를 부르는 곳 설악산 四色비경_주전골(가을)

○ 대 상 : 가족, 일반성인

○ 운영기간 : 가을

○ 운영형태 : 당일형, 1박 2일

○ 장 소 : 설악산 국립공원 주전골

○ 주요내용 : 주전골 탐방, 설악산 숨은 명소 소개, 힐링 체험 프로그램, 밤빛나들이

○ 소요예산 :

○ 참 가 비 :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유선문의(월 1회 홈페이지 공지, 모집인원에 따라 운영 결정)

○ 참가자 접수 방법 :

○ 사업성과 홍보 :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서면)

○ 효과성 조사 :

첨부 1. 일정표

2.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3.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생태관광

나를부르는 곳 설악산
四色비경_주전골(가을)

활동장소	오색 주전골 계곡
소요시간	90~120분
참가대상	성인
참가인원	20명내외/해설사2명
작 성 자	자연환경해설사 박현숙

활동목표	• 트레킹 시 현장 체험의 흥미제고 •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여행
준비물	• 편한 복장, 구급약품, 사진자료, 개인 비상식량, 도시락
유의사항	• 현장상황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 • 참가자 연령대 확인으로 트레킹 코스 조정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인사**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첫 만남, 주전골 소개 및 트레킹 코스 소개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 준비운동 하기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오색 주전골 계곡 소개** – 주전골의 유래와 위치, 특이한 자연환경 이야기 – 가을 단풍 이야기 • **주전골 명소 소개 및 경관 해설** – 오색약수, 성국사 소개 – 독주바위, 금강문, 성모마리아상 바위 이야기 – 용소폭포, 선녀탕과 설악산 화강암 이야기	9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트레킹 후 느낌나누기** • **마무리 스트레칭 하기**	5분

시나리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색 주전골 에서 안전한 탐방과 멋지고 즐거운 해설을 진행하게 될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오색 주전골을 걸을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기암괴석이 멋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변 경치를 감상 하시면서 이런 귀중한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무들과 식물들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까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우선 이 마을에 사시는 이웃 분들께 해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자연보호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체력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되 몸이 불편하시거나 넘어져 다치셨다면 저희 해설사에게 구급약이 있으니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색 주전골 이란

○ 오색 주전골에 오셨으니 오색 주전골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의 꽃이 피는 나무가 있는 곳에서 유래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색석사의 후원에 청 . 황 . 적 . 백 . 흑의 오색(五色)의 꽃이 피어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그럼 출발에 앞서서 간단한 준비운동과 함께 주의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출발 하겠습니다.(준비운동 진행)

오색약수 구간은 길이 다소 좁고, 바위가 많아서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탐방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곳에는 바위지대라서 독사가 많습니다. 항상 정해진 탐방로로만 다니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전골 명소 소개 (대상과 해설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

○ 오색석사

6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절터 이며, 보물로 지정된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색상의 꽃이 피는 나무와 함께 다섯 가지 색상의 돌이 있다고 하여 오색석사 라고도 불립니다.

○ 오색약수

철분과 나트륨 함량이 많아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이물을 이용해서 밥을 지으면 푸른빛이 돌며 밥맛이 좋습니다.

□ 주전골 자연해설

○ 자연 해설

1. 졸참나무

참나무 중에 가장 막내라서 졸병 참나무랍니다. 그러나 나무는 작지 않고요. 열매는 가장 맛있답니다. 다만, 열매의 크기가 작아서 붙여진 이름 일듯하네요.

2. 귀룽나무

습기가 많은 곳에 살고 있는데 오래된 나무는 9마리의 용이 용트림을 하는 듯 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 보다 일찍 꽃이 핀다. 예전에는 토종벌의 꿀을 얻기 위해서 귀룽나무의 가지를 사용하였다고 하고, 쑥으로 연기를 피워서 벌을 진정시키고 벌들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정도의 꿀은 남기고 얻었다면, 귀룽나무가지를 연기를 피우면 벌들이 모두 죽기 때문에 많은 량의 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귀룽나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들을 죽이는 용도로 쓰임을 당하기에 가장 일찍 꽃을 피우지만 벌들도 외면하는 나무랍니다.

3. 물푸레나무

물을 푸르게 한다고 물푸레나무랍니다. 이곳에 물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 이유도 이 물푸레나무 때문이지 않을까 하네요. 그만큼 물가에 많이 사는 나무랍니다.

4. 신갈나무

참나무류 중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살아가는 나무이며, 산골에서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인간에게는 추위를 이겨내게 해주는 땔감의 역할, 배고픔을 해결(도토리묵)해주는 역할, 토양의 지력을 높여주는 비료(잎)의 역할 등이 있으며, 야생동물에게는 집으로, 먹이로, 피난처로의 역할을 해내는 고마운 나무랍니다.

5. 음나무

어린 나무는 는 가시가 많아서 쉽게 만지지 못하지만, 큰 나무는 가시가 퇴화 되어 없어져서 어릴 때 보던 나무를 상상하신다면 절대로 못 찾을지도 모르겠네요.

잎이나 껍질을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아름드리 엄나무를 잘라서 잎을 채취하고 껍질을 벗겨가기도 한다.

실제로 울산바위가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에서 집단적으로 나무가 베어진 현장이 발견 되어 큰 이슈가 된 적도 있었다.

6. 함박꽃나무(산목련)

북한에서는 이 나무를 북한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목련과 비슷해서 산목련 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목련보다는 늦게 피기도 하지만 향기는 훨씬 더 진하답니다.

7. 생강나무

나무에서 생강냄새가 나서 생강나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산골에서는 생강을 대체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봄철에 노란 꽃을 피우고 일찍 피기도 하며, 흔히 산수유와 비교를 하기 도 하는데, 대개는 산수유는 재배를 하지만 생강나무는 숲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나무랍니다.

8. 금강초롱

이름에 금강이 들어가는 것은 발견 장소가 금강산이기 때문이다. 금강초롱 또한 한국특산식물이다.

오빠를 찾아 금강산에 온 소녀의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피어난 꽃이라는 전설도 있다.

9. 조릿대

대나무 중에서는 가장 작은 나무 이며, 쌀에서 돌을 고를 때 사용하는 조

리를 만드는데 사용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릿대는 군락을 이루어 자라지만 땅속줄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30~40년 만에 꽃을 피우면 그 이듬해에는 죽어 버리는 특성이 있답니다.
단 한번 꽃을 피우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조릿대처럼 저도 목표를 위해 불살라 보고 싶네요.

10. 서어나무

근육나무(머슬트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오래된 나무는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자란답니다. 숲의 천이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서 숲을 지킨다고 하는데,숲의 천이과정이란 훼손된 토양에 1)초본류가 자라다가 2)관목이 자라고 3) 교목이 자라는데 먼저 침엽수가 자라던 곳에 활엽수가 조금씩 침범을 하여 4) 나중에는 활엽수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활엽수 중에서도 서어나무는 가장 나중에 들어와서 자라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한동안 숲은 움직임을 멈추고 안정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수하늘소의 애벌레가 이 나무에서 자라는데,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숲이 사라지며, 장수하늘소도 덩달아 사라져 가는 아픔이 있답니다.

11. 박달나무

목재가 단단해서 야구 방망이를 만들 때 사용 했다고 하는데, 철이 귀한 시절에는 철을 대신하는 자리에 쓰였다고 합니다.

12. 쪽동백나무

이름에 동백이 들어가서 남부지방의 동백나무와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사용하는 용도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나무의 덜 익은 열매를 짓 찌어서 물에 풀면 물고기가 잠시 기절을 하고 그사이에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13. 족도리풀

꽃모양이 전통혼례식에서 신부가 쓰는 족도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야생화와는 다르게 꽃이 땅에 붙어 있어서 날아다니는 곤충을 통한 수정보다는 개미가 수정을 도와 주고 있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생긴 뿌리는 박하 냄새가 나며, 먹으면 입안을 잠깐 동안 마비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치통이나 입 냄새 제거에도 사용하기도 하였다.

14. 투구꽃

꽃모양이 로마의 병사가 쓰던 투구의 모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약의 재료로 쓸 만큼 강력한 독 이 있다. 각시 투구꽃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 **주전골 경관해설**

○ **용소폭포주차장**

오색 주전골을 탐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색약수에서 출발 하는 것과, 하나는 바로 이곳 용소폭포 주차장에서 출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코스마다의 장단점이 있으니 여러분들 사정에 맞추어서 탐방을 진행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곳 용소폭포 탐방로에서부터 탐방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이라서 편하게 탐방을 하실 수는 있지만 미끄러운 암반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곳을 지나면 바로 만경대를 가실 수 있는 입구가 시작 되는데 한시적으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경대 까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일방통행으로만 산행이 가능 합니다.

○ **용소폭포**

용소폭포는 주전골 탐방로의 대미를 장식 하는 명소입니다. 하얀 계곡물이 붉은 빛을 띠는 부드러운 암반 사이로 흘러가서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곳으로 떨어집니다. 높이는 약 12m정도이며, 소의 깊이는 7m 정도라고 합니다. 이소에서 이무기 2마리가 천년을 살다가 용으로 승천 할 때가 되어 승천하려다가 수놈만 승천하고 암놈은 미처 준비가 안 된 탓에 이곳에 굳어져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러보시면 암놈 이무기의 바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용소삼거리**

주전골, 천불동과 함께 설악산을 대표하는 곳이었지만 태풍에 의해서 무너졌고 낙석의 위험이 있기에 안타깝지만 개방이 되지를 않고 있답니다.

○ **금강문**

금강석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혜를 배우고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이문을 지나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 꼭 소원 하나씩 빌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만물상**

만 가지 형상이 보인다 하여 만물상이라고 합니다.

○ **선녀탕**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였다는 선녀탕인데 예전의 명성은 없지만 아직도 흔적은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꾼 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겠지만 이곳에 동전을 던져서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비록 지금은 '선녀탕'이 아니라 선녀님들이 발만 담그고 가는 '선녀 족욕탕' 이 되었지만 아직도 선녀탕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 있는데 한 번 찾아볼까요?

○ **독주암**

정상에는 혼자만 올라가서 앉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

로 앞에 있어서 얼마 높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 높이가 무려 120m 랍니다.

○ 주전동굴

승려를 가장 한 도둑 무리가 위조 엽전을 만들 던 곳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던 바위굴입니다. 지금은 굴처럼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는 깊이가 상당히 깊었는데, 태풍에 의해서 굴이 무너지고 형태만 남아있습니다.

○ 대륙밭쥐

바위위에 얹혀 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의 손처럼 물이 적은 바위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구실사리 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자세하게 보시면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곳은 대륙밭쥐 라는 설치류가 살아가고 있는 대륙밭쥐의 아파트입니다. 천적을 피해서 구실사리 속에 집을 짓고 터널을 만들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대륙밭쥐를 찾아볼까요?





□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주전골의 숲길을 따라 걸으시며 경치도 구경하시고 경관에 대한 해설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시는 길에도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연환경해설사 ○○○ 이었습니다.